

은행

Analyst

신규광

kkshin@sksec.co.kr

+82-2-3773-8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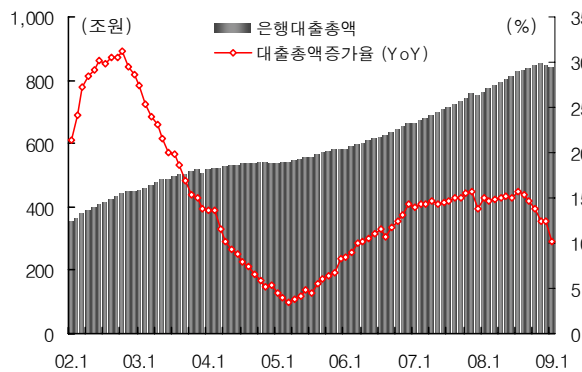
모멘텀이 없는 삼각파도 속의 은행업종

은행권 대출성장세 크게 둔화되고 있어

2008 년 중반까지 전년동기대비 15%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던 예금은행의 대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2009.1 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은 843.4 조원으로 2008.11 월말 대비 9.7 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경기민감업종 중심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향후 세계 및 국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인해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내 가계대출부문의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 증가로 은행권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성장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은행 대출총액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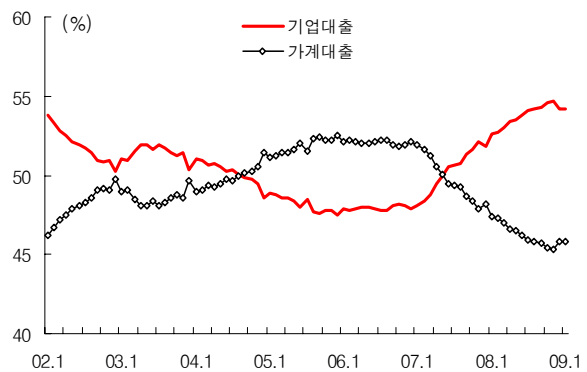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과 가계대출 비중 추이(월별)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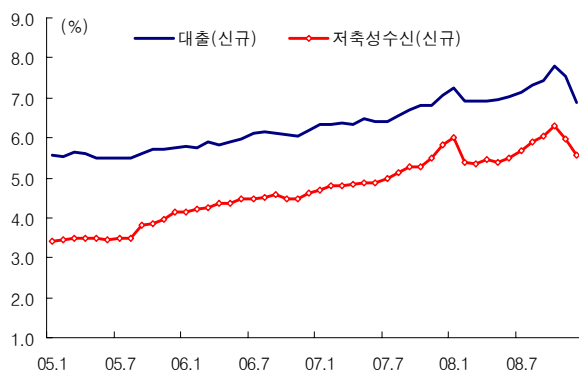
2009 년부터 예대마진의 본격적인 하락세 불가피할 전망

2008 년 12 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금융채 포함)는 5.58%로 11 월에 비해 37b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은행들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에 따른 고시금리 인하 등으로 6% 이상 고금리 예금의 구성비가 하락함에 따라 전월대비 27bp 하락하였다. CD,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 발행금리도 시장금리 하락과 은행채 스프레드 하락 등으로 전월대비 61bp 하락하였다. 대출금리의 경우 6.89%로 전월대비 64bp 하락하였다.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6.87%로 전월대비 64bp, 계대출은 7.01%로 61b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CD 금리의 상승으로 2008 년 11 월까지 4 개월 연속 예대마진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12 월부터 금리의 하락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예대마진의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은행권의 예대마진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10 월 중 6%를 상회하던 CD 금리가 2.57%(2/13 일 기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CD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금리의 하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은행권이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마진 하락에 대응하고 있으나,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신규대출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대마진 하락은 대출의 저성장과 더불어 은행권의 이자부분 이익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은행 여수신금리 월별 추이(신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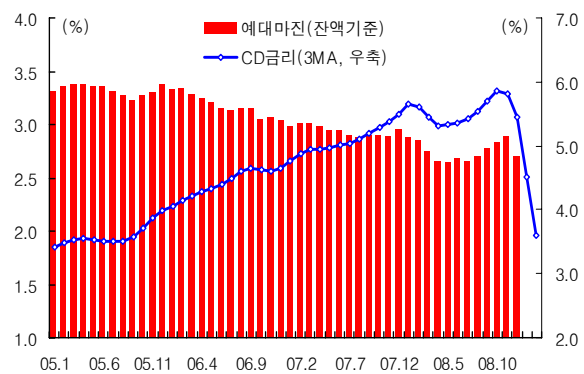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SK 증권

예금은행 예대마진과 CD 금리 추이

(단위 : %)



주 : CD 금리는 월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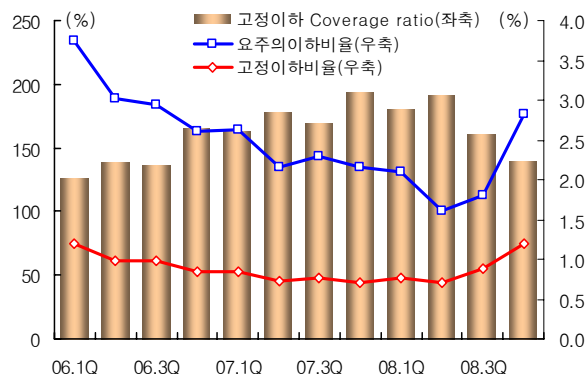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SK 증권

상장은행들 자산건전성 악화되었으며, 향후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 지속될 전망

2008 년 4 분기 중 상장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12 월말 현재 상장은행 평균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은 2.82%로 9 월말 대비 100bp 상승하였는데, 경기 침체기에는 요주의에서 고정, 고정에서 회수의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주의 이하 여신비율의 상승세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32bp 상승한 1.19%, 고정이하 Coverage ratio 는 139.2%로 전분기말 대비 21.5%p 하락하여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향후 부실 흡수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은행 자산건전성 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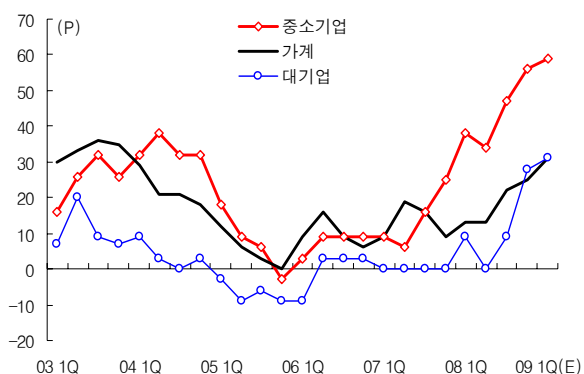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각 은행, SK 증권

차주별 신용위험 분기별 추이

(단위 : P)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4분기의 대폭적인
실적 악화로 바닥론이
불거지고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모멘텀
부재내지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투자의견 ‘중립’
유지**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건설 및 조선소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등으로 4분기 중 상장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모가 2.3조원에 이르러 전분기와 전년동기대비 각각 90.7%, 149.9%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상장은행들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6,648억원의 적자를 시현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실적과 주가의 바닥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사는 여전히 은행업종이 처한 경영환경이 바닥을 논하기는 너무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은행들의 성장성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진 하락과 충당금 적립 부담이라는 삼각파도 속에서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 및 조선소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불확실성 해소라기보다는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은행들이 감내해야 할 상황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는 은행업종이 당분간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Compliance Notice

- 작성자(신규광)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09년 2월 16일 16시 16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단계 (6개월 기준) 25%이상 → 적극매수 / 10%~25% → 매수 / -10%~+10% → 중립 / -10%미만 → 매도